

전자신문

이현수 기자

잘못한 취재가 시각을, 인생을 바꿨다



나는 살이 찌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양말 신기가 버거워지고 있었다.

소위 ‘뽕뽕’ 이라고 그런다. 좋은 기사를 써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한 경험은 이 직업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대다수 기자는 사명감으로 취재를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쓴다. 멋진 일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기레기 소리 안 들으려고 취재를 하고 월급쟁이라서 기사를 쓴다. 그런 나에게도 다른 기자와 공통점이 있다.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바꾸려 하는 목표의식이다. 선후관계가 좀 이상하지만 난 이 목표의식이 기자가 된 뒤에 그것도 한 참 뒤에 생겼다. 잘못된 취재가 쌓아 올린 결과로 말이다. 나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긍정적으로 변했다.

난 머리가 굽어진 이후 군시절을 제외하면 과체중이 아니었을 때가 없었다. 살 빼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다이어트랑 연애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의지박약이었다. 양말을 신기 힘들 때까지 살이 찌도 ‘살을 빼야겠다’ 라는 의미 없는 다짐만 할 뿐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마음에 드는 짝꿍을 괴롭힐 때 내 인생의 실천력을 전부 다 쓴 것으로 믿었다.

변화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2019년 초여름, 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혈빛은 예쁜 여성들이 왜 나에게 친구요청을 하는지 몹시 궁금했다. 나조차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곤 하는데 그들이라고 뭐 다를까. 그래서 속



살을 빼도 잘 생기지는데는 실패했다 (좌- 게임이용장애민관협 의체설립 당시(19년), 잘생겨지는데 실패 했지만 턱선은 생겼다 (21년))

아주면서 만났다. 아나나 다를까 사기가 목적이었다. 기삿거리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제기된 건이어서 기사가 치가 없었다. 잘못된 취재였다.

예쁜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걸 리가 없다는 교훈은 얻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을 무렵 칼럼을 써야 하는 날이 왔다. 전날 과음을 해서인지 거룩하고 고상한 주제가 생각나지 않았다. 마감 시간은 다가왔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알코올이 다시 몸에 퍼졌다. 급한 마음에 잘못된 취재에 관해서 썼다. ‘어쨌든 마감은 했다!’라고 면피하기 위한, 지면에 얹혀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기사였다. 그런데 이 기사, 제법 잘 팔렸다.

기사에 살을 빼보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메일도 다수 들어왔다. 100kg을 넘어서 110kg을 향해가던 시기였다. 관리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과 3년을 신 연애를 다시 하기 위해 서라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댓글이 내 의지를 자극하고 잊고 있던 실천이라는 단어를 꺼내왔다. 왜 언론사들이 모바일 퍼스트를 외치는지 알았다. 하나 배웠다.

워낙 비대했던 몸이라 약간의 운동과 식단관리만으로도 빠졌다. 감량이 재밌었다. 때마침 여자친구도 만났다. 연애하기 전에 그리고 알아가기 시작하고도 꽤 오랫동안 ‘왜 이렇게 예쁜 친구가 나를 좋다고 하는 거지?’ 라면서 의심할 정도로 예뻐다. 꽃뱀 아니면 취미가 봉사활동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혹은 유니세프 직원이던가. 하지만 내 통장 잔고나 우리 집 안을 봤을 때 딱히 뜯어갈 게 없다는 걸 알고는 의심을 거뒀다.

100kg이 넘었을 때 얼굴은 네모네모 네모였다.



연애 초기 대한민국의 모든 연인이 그렇듯 우리도 맛집을 다녔다. 붙어 다니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 살도 다시 붙었다. 왜 유부남들이 살이 찌는지 알았다.

이 친구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좋다면야 뭘 입어도 잘 어울리겠지만 나는 아니었다. 친구 딸이 ‘네 모네모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형과는 거리가 먼 육신을 가졌다. 원체 패션에 관심도 없었다. 봐주기 힘들 정도로 옷을 못 입었다. 가진 옷 중에 가장 많고 비싼 것이 ‘검은사막’ 캐릭터가 입는 속옷이었다.

그 당시 난 후드티와 9부 바지를 즐겨 입었다. 스스로 잡스 스타일이라고 착각했다. 여자친구는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였던지 나에게 이별을 고했다. 핑계인지 진심인지 옷 입는 게 본인이랑 너무 안 맞는다고 했다.

이별을 막기 위해 공부했다. 이전 사람들과 다르게 연애가 행복하다는 것과 사랑을 알게 해준 사람을 잡고 싶었다. 딱 치는 대로 패션잡지를 사들여 읽었고 의류밴더 종사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집 앞 서울숲과 성수동 거리에 앉아 몇 시간이고 사람들은 도대체 옷을 어떻게 입는지 관찰하기도 했다. 이럴 때 쓰려고 과거에 그렇게 뽐치기를 했었나 보다. 선배들이 알려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 걸

또 배웠다.

옷을 보다보니 옷이 단순한 껍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잖아 알았다. 라이프스타일이나 성향, 가치관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때와 장소에 맞게 사회적 구실을 하게 하는 역할도 병행했다. 또 한 가지를 배웠다. 세상을 보는 시선도 넓어졌다.

알면 알수록 잘 입고 싶었다. 그런데 몸이 문제였다. 어깨는 넓었다. 상당히. 머리도 컸다. 매우 상당히. 그래서 멋지게 입기 쉽지 않았다. 허벅지는 너무 두꺼웠다.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는데 무슨 바지를 입든 항아리 바지가 됐다. 살을 빼는 건 여전히 어려웠고 지속성을 가지는 건 더 힘들었다.

여기까지 인가 싶었다. 박망파를 향해 도망가던 유비의 백성이 조조 군을 만났을 때의 무력함이 이런 건가 싶었다.

그러던 차에 피트니스게임, 헬스와 게이미케이션 세미나를 취재할 기회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기능성 게임은 운동 효과가 적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겼돌이로서 반발심이 생겼다. ‘왜 게임을 무시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무시가 아닌데 자격지심에 가득 차 있던 그때는 그랬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게임이 워낙 억압을 받았기에 게임

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면 반사적으로 공격 날을 세우는 사람이 제법 있다. 나도 그랬다.

게임을 다루는 기사에 대한 반발심도 약간 있었다. 대한민국 언론사가 게임을 대하는 스탠스는 언제나 산업으로서 게임이다. 어떤 게임이 얼마를 벌었고 누가 C레벨이 됐고에 집중한다. 패키지가 연봉을 얼마 받는지가 곧 e스포츠 산업의 바로미터로 여긴다.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획이, 어떤 기술이, 어떤 콘텐츠가 들어갔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완전히 게임 콘텐츠에 집중하는 기사를 써보고 싶었다. 데스크을 넘기 힘들어 보이는 잘못된 아이템이었지만 하고 싶었다.

게임과 나는 애증의 관계다. 정확히 말하면 나 혼자 좋아하고 나혼자 싫어하는 관계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다. 아버지 영향으로 무려 하드디스크가 달린 컴퓨터를 상당히 일찍 접했다. 5.25인치 디스켓을 넣고 도스부팅하던 시절이었다. 국민학생이 컴퓨터를 켜면 뭘 할까. 게임밖에 없다.

‘위험한 데이브’, ‘마이트앤매직’, ‘위저드리’, ‘고블린’ 같은 게임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 고학년이 되어도 중

학생이 되어도 고등학생이 되어도 게임을 많이 했다. 어쩌면 게임을 하느라 엉덩이가 무거워져서 살이 더 찌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부모님과 갈등이 깊어졌다. 엄마는 컴퓨터를 부수기까지 했다. 그 때 컴퓨터 조립하는 걸 독학했다. 지금도 엄마는 게임을 안 했더라면 내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을 거라고 한다. 여기서 웃음포인트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내가 게임 때문에 발생하는 가정 내 불화를 해결하는 강연을 하러 다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트니스게임으로만 살을 빼보기로 결심했다. 1년 동안 피트니스게임을 했다. ‘피트니스복싱’, ‘링피터어드벤처’, ‘저스트댄스’, ‘즈유프트’, ‘스트라바’ 등을 했다. 즈유프트랑 스트라바는 전통적인 게임범주에 넣기는 무리지만 게임 영역은 지속 확장하고 있으므로 포함시켰다. ‘게임’ 이든 ‘계엄’ 이든 ‘검은 소’든 ‘흰 소’든 살만 빼면 된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2019년 110kg을 바라보던 몸은 2021년 70kg에 도달했다. 2022년에는 기능성 게임 제작사에서 원시레벨 수준 개발단부터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정신적으로도 발전이 있었다. 무기력함이 없어졌다. 뇌수술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조금씩 다시 살이 찌고있기는 하지만 적당히 그래도 즐겁게 살면서 유지하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 몸이 가벼워진 만큼 마음도 가벼워졌다. 공격성이 줄어들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여유증 대신 진짜 여유도 얻었다. 살을 뺀 덕에 세상이 달라 보였다.

잘못한 취재와 잘못된 아이템 선정이 나를 변하게 했다.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다가 게임 때문에 혹은 게임 덕분에 기자가 됐고. 기자가 돼서 좌충우돌하다 보니 업계 밖이나 언시생들 중 알아봐 주는 사람이 생겼다. 이를 계기로 살을 빼기 시작했고, 기능성 게임 효과를 확인했다. 아마 1년 동안 체험해보고 입증한 건 내가 대한민국 기자 중에 최초가 아닐까 싶다. 게임사도 1년 동안 검증 안 한다. 운동의 효과인지 감량의 효과인지 삶이 꽤 적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 피해의식도

없어졌다. 덕분에 내 장점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알게 됐다.

인생은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진전을 이뤄내고는 한다.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이었지만 어찌 됐든 지금은 적당히 만족하며 산다. 기자가 아니었다라면, 실패한 취재에 공감해준 독자들이 아니었다면 아직 난 내 매력과 가능성을 모르고 살았을지 모른다. 여전히 세상을 빼박하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잘 생겨졌냐고? 그건 아니다. 다만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세상을 대하다 보면 간혹 나를 잘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만난다는 걸 아는 정도로 내 인생을 바꿔놨을 뿐이다. 🙏